



Deloitte Newsletter

업계 주요 뉴스

회계, Tax, M&A 등 관련 업계의 주요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금감원, 올해 회계감리 대상기업 151 개사로 대폭 늘려

올해 금융감독원이 151 개사의 감사보고서 감리에 착수해 분식회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영진뿐 아니라 감사 등에도 강도 높은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금감원의 '2015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무제표와 감사품질관리 감리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거나, 감사 등의 견제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기업의 경영진에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또 상장법인 감리주기를 기존 40 년에서 12 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테마 감리 비중도 늘리기로 했으며,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절반씩 나눠 외부감사인 10 곳에 대한 감사품질 관리 감리도 하기로 했습니다.

회계감사 업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28 일 회계법인들의 회계감사 업무지원을 위해 (사)한국 XBRL 본부 및 NICE 평가정보(대표이사 심의영) 등과 손잡고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공유하기로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세 기관은 향후 회계감사 업무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NICE 평가정보는 회계감사 시 필요한 신용공여정보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 KPMG-500V, 스타트업 재무·회계 컨설팅 제휴

삼성 KPMG는 벤처연합 500V(오백볼트)와 지난 6월 500V의 연합 기업들에 대한 회계 자문 및 재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월 7일 밝혔습니다. 이번 두 회사의 제휴에 따라 500V의 연합 기업들은 국내 정상의 회계법인인 삼성 KPMG의 전문 회계·재무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투명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IPO(기업공개)나 M&A 등 향후 자본시장 진입에 대비한 회계적·재무적 역량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축은행 분식회계, 회계법인 책임 없다"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심 법원이 회계법인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동안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책임이 광범위하게 인정돼온 가운데 나온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회계법인이 기업을 면밀히 조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그 동안 분식회계에 대해 과도하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다른 저축은행 투자 피해자가 진행 중인 소송이나 기업의 부실감사 관련 법적 분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Y 한영, 인도 비즈니스 전략 세미나 개최

EY 한영은 지난 6월 16일 서울 여의도 태영빌딩 T아트홀에서 인도시장을 전략적으로 탐색할 '2015 인도 비즈니스 이슈 업데이트 및 전략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재 EY 인도에서 한국 비즈니스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티시 아갈왈 파트너와 EY 한영의 이용표 상무, 최필균 이사 등 현지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강연을 진행했으며, 현재 인도의 회계 및 세무제도와 동향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인도 시장에 대한 설명과 투자환경, M&A 동향 분석 등도 소개됐습니다.

삼일인포마인, 세무·회계·법률 자문위원단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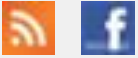
삼일인포마인은 세무·회계·법률 전문가 모임인 '삼일인포마인 자문위원단'을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일인포마인은 지난 5월 1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강성태, 김완석, 김종수, 박훈, 안경봉, 오윤, 윤지현, 이상신, 이재호, 이준규, 이준봉, 정운오, 정지선, 홍기용, 황남석 교수 등 15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에 한국인 위원 첫 진출

한중수 이화여대 교수가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 위원으로 19일 선임됐습니다. 14명의 위원과 1명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IFRS 해석위원회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약 130여개 국가에서 사용하는 IFRS를 해석하고 지침을 제정하는 기구로, 한국인이 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중수 교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가 앞으로 3년간 IFRS 해석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사립대 회계제도 투명성 제고 위한 정책토론회 열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대구달서읍)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이 6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학재정회계 투명성 제고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사립대학 회계 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대학재정회계 투명성 제고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기획됐으며, 사립대학 회계기준서 제정과 운영 방안, 대학회계감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실천 가능한 운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9층
150-945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와 그 회사들의 네트워크는 법적으로 독립된 조직입니다.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와 각 회사의 법적인 구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www.deloitte.com/kr/about 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